

개혁주의 성례론

이 근 삼 박사
(고신대학신학대학원교수)

一. 성례전

1. 성례의 정의

어거스틴은 “성례전은 신성한 것의 보이는 표징, 또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가시적 형태라”고 하였다.(De Catechizandis rudibus, XXVI, 50)

칼빈은 “성례전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징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 표징에 의해서 주와 주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간단히 정의해서 “성례전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형적인 표징에 의해서 확인

하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서로 증거하는 것이다”고 했다(기독교 강요 4 : 14 : 1).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례는 은혜 계약의 거룩한 표와 인치심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관심을 견고하게 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뚜렷하게 구별시키며,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엄숙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고 한다(27 : 1). 그런데 “성례”의 원래 사용된 용어는 뮤스테리온(μυστήριον)이란 헬라어인데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트(Sacrament)로서 그 뜻은 “신비” 또는 “비밀”이란 것이다.

이 용어가 신약에 에베소서 1 : 9, 3 : 2, 3, 골로새서 1 : 26, 27, 디모데 전서 3 : 16에 사용되었다. 성례는 언약들의 표증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신빙성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칼빈은 어거스틴처럼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한다(기독교 강요 4 : 14 : 7).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우리에게 알맞는 매체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Condescending love). 그러므로 성례는 우리가 은혜받는 방편인 것이다.(恩惠의 方便)

2. 교회의 정규적 성례

주께서 그의 교회에 행하라고 명하신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이다. 그런데 그 후에 이 행사가 사악하고 미신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타락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식이 생겼는데 이것들이 종교를 고백할 때에는 외형적 표징이 없을 수 없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진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상징, 진정한 경건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의 근본 목적에 합한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만찬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교의 7성사 중에 세례식과 미사를 제외한 5성사

(견진성사, 고백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병자성사)는 인정할 수 없다.
(칼빈, 기독교 강요 4 : 19 : 1-37 참조)

二. 세례

신약성경에 계시되고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행해지는 성례이다(마 28 : 19). 그리고 이 예식은 개인 신자가 신앙을 고백하므로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에 가입하는 시점에 한 번만 시행되는 것이다.

세례는 물을 표징으로 하는 세례적 행위와 그것에 따르는 말씀을 그 요인으로 한다. 물로 씻는 의식은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도 볼 수 있고 구약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세례는 그 기원이 세례 요한, 특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세례에 그 시작을 볼 수 있다(마 3 : 13f ; 막 1 : 9f ; 눅 3 : 21f ; 요 1 : 29f). 그 후에 예수님 사역시에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고(요 4 : 1), 마태는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과 함께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마 28 : 19)

1. 세례의 의미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문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A. 칼빈은 세례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기독교 강요 4 : 15 : 1)

가. 세례는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표와 증명이다.

즉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용서받고 소멸되어 하나님 앞에 정결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이다.

세례는 그 중심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 : 16)라는 약속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엡 5 : 26)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 : 5)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벧전 3 : 21)고 했는데 세례가 구원받게 하는 효력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라(벧전 3 : 21)고 하였으니 이것은 세례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을 약속한 것이다.

칼빈은 이것을 설명하여 여기서 깨끗케 하고 씻어낸다는 점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피를 물로 대신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씻는 진정한 요소이다.

그런데 세례가 과거의 죄만 씻음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언제 세례를 받든지 일평생 씻음받아 깨끗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넘어질 때마다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죄에 대한 확신을 항상 가져야 한다.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며 세례 후에 지은 죄로 인하여 세례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4 : 15 : 3)

바울이 로마서 3 : 25에 한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 죄의 씻음은 세례로써 그 표징과 증거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죄의 사면은 세례와 관련된 것이다. 경건한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의 죄과를 피로워할 때마다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唯一面的) 죄씻음받았다는 확신을 새롭게 한다.

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표증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세례의 신령한 의미를 강조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 : 4)고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음에 동참하게 하고 우리를 그의 죽음에 접붙이려는 것이다.

접목된 가지가 연결된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취하듯 바른 믿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성령이 새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롬 6 : 11)

이와같이 죄의 용서와 의롭게 됨이 약속되고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어 새 생활을 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약속된다.

㉔.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다는 표징이다.

위에 말한 대로 우리의 믿음이 세례에서 받은 유익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접붙임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 그의 모든 축복과 은혜에 참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와 맺은 연합과 교제의 견고한 유대를 갖는 공통적 광장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성별하시고 거룩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게 되고(갈 3 : 26, 27) 우리의 세례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세례의 고유한 목적이라고 부른다(칼빈, 기독교 강요 4 : 15, 16).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세례에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이 함께 불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은혜를 얻도록 증보자를 두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결과 중생을 위해서 아버지는 원인을, 아들은 자료를, 성령은 효력을 나타내신 것이다.

신자의 세례는 구원의 기초와 원인이 되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해 주고, 세례받는 것이 수세자 자신의 선택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고, 성부의 영원한 선택은 성자의 대속적 죽음으로 성취된 것이므로 이 죽음에 다른 무엇도 더 보탬 수 없다. 수세자의 회개와 신앙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구원 역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선택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과 같이 세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사로잡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말해 준다.

이와같이 세례는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대속적 죽음과 성령의 구원역사를 통해서 옛 사람의 삶의 종식과 새로운 의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고 이것은 자기부정과 신생, 회개와 신앙과 순종으로 인도한다.(롬 6 : 3-11)

B. 칼빈은 세례가 사람 앞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봉사한다고 한다.

㉕.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소원함을 공포한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을 증명한다. 또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증언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마음뿐만 아니라 혀와 모든 지체로써, 또한 모든 재간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주게 돌리므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본을 받아 같은 노력을 하도록 자극을 받게 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전 1 : 13)고 묻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이름에 충성하고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㉖. 세례의 증표에 의해서 믿음을 강화한다.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자라게 하며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제정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같이 받아야 한다. 이 표징을 통해서 말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실,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일, 사단에서의 해방, 정욕을 이김, 주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일, 이와 같은 영적 은혜를 세례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유비적으로 우리에게 참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즉 세례를 통해서 그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심을 확증한다.

외형만이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존하신 실재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외형이 상징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심을 확증하는 것이다.

세례를 통해서 사죄의 확신과 아울러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ㄷ. 세례는 주례자의 공로

과거 도나투스파는 목회자의 신앙과 도덕이 성례전의 힘과 가치를 좌우한다고 생각했고 재세례파에서는 교황 제도에 우상숭배자들에게서 세례를 받은 것이 참세례가 아니라 하여 재세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례전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집례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례이면 거기에는 죄를 사하고 육을 죽이며 영으로 다시 살리고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하는 약속이 포함된 것이다.

2. 세례 양식

세례의 양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 “침수”의 양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취급해야 할 문제이다. 세례라는 말의 원어가 βαπτίζω로서 Baptism으로 영어화됐는데 이 말의 뜻은 침수(immerse), 부음(pouring out), 뿌림(sprinkle), 떨침(dropping)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반드시 침수(침례)라고만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로교 신앙고백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세례받을 사람을 물속에 잠글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세례는 물을 그 사람에게 붓든지 뿌려서 베푸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다.”(28 : 3)

먼저 사도행전 1 : 5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여 요한의 세례와 기독교 세례가 뿌리는 양식임을 알게 한다. 성령으로의 세례는 몇날이 못되어 오순절에 베풀어졌다.(행 2 : 2, 3)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 했고 2 : 17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pouring out, 겔 36 : 25-28 참조)라고 하였다.

이런 현상은 결코 침수상태라고 하기 어렵고 그것은 “물 붓는” 또는 “뿌리는” 현상으로 보아진다.

사도행전 1 : 5에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오순절의 성령세례가 연결되어 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것이 물속에 침수됐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한이 물을 뿌림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 그것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요 1 : 26, 31, 33 ; 마 3 : 31)라고 한 데서 ἐν ὕδατι(in or with water)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물속에”보다는 “물로써” “물을 가지고”라는 뜻이 가깝다(εν + 여격의 경우에 with의 뜻을 가진다). 그런데 마가복음 3 : 16 과 마가복음 1 : 10에는 “물에서 올라오실새”(ἐκ와 ἀπο)로 되어 있다.

사도행전 8 : 38, 39에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는 εἰς τὸ ὕδωρ...ἐκ τοῦ ὕδατος로 되어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보다는 물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심으로 인생을 가지적으로 취했고 십자가에 달리시므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셨다. 그런데 그가 세례받으심으로 대제사장직을 시작하셨던 것이다. 구약에 모든 제사

장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고 제단과 기구에는 기름을 뿌렸던 것이다. 기름부음은 성령을 대표하는 것이다. 부음과 뿌림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부음은 곧 뿌림이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 : 15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죄 담당, 세례를 통해서 의를 이루신다는 것이다.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 53장이었다. 거기에 기록된 주의 종의 노래(사 52 : 13~53 : 12)이다. 빌립은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거기에 세례에 관계된 것은 52 : 15에 있는데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라는 말인데 “열방을 물로 뿌릴 것이며”(So will he sprinkle many nations)라는 말로 되어 있고 이것은 열방을 중생으로 죄에서 청결케 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 “뿌림”(Sprinkling)의 뜻은 구약과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또는 성물 봉헌에 성령을 받는 상징으로 기름을 붓고 뿌렸고 죄를 청결케 씻은 상징으로 물을 뿌렸기 때문이다. 이사야 52 : 15에 이방인들도 깨끗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시킬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시가 세례의 의식을 받지 못할 이유를 물었던 것이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행 8 : 36). 여기 말한 세례의 개념에 앞에서 말한 뿌린다는 외에 침수 또는 침례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구약의 희생제도를 보면 출애굽기 24 : 6-8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받은 단에 뿌리고...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하였다.

예수의 피는 이 새 언약의 피였다(눅 22 : 20). 오순절에 성령강림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뿌려지는 양식을 보여주었는데 언약의 피가 성취된 장면이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이 언약의 추진자는 성령이시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겔 36 : 25-28)

히브리서 9 : 10에 “여러 가지 씻는 것”은 19, 20 절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언약의 피라” 하고 21 절에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고 하여 씻음과 뿌림을 대구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사도행전 2 : 41에 일시에 3,000명에게 세례를 준 일이나 사도행전 10 : 40, 41에 고넬료의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세례를 준 경우 등을 생각할 때 물에 잠기게 하는 침수침례보다는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적합한 양식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 : 1, 2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했는데 그들은 육지와 같이 바다를 통과하였으니 이것을 영적 해석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고백이 말하는 대로 “세례받을 사람을 물속에 잠글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세례는 물을 그 사람에게 붓든지 뿌려서 베푸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다.”(28 : 3)

3. 유아세례

장로교 신앙고백 28 : 4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복종을 고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믿거나 한편만 믿는 유아라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대요리문답 166의 답에는 “양편 혹은 한편이 그리스도에게 신앙과 순종을 고백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배울 수 있다”고 하여 언약의 자손됨으로 세례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신조에 따라서 유아세례에 대하여 그 의미와 그것이 주는 유익을 생각해볼 것이다.

가. 유아세례는 하나님의 은혜계약에 속한다.

신자의 자녀들은 은혜계약에 포함된 것이 인식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징표(sign)와 기호(seal)를 받도록 해야 한다.

a. 구약의 할례의 의미

로마서 4 : 10-12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나...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된 의의 표와 인치심이었다. 이 의는 인간 아브라함의 공로로 갖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전가된 것이다.(롬 3 : 27 ; 4 : 4, 5)

이 의의 전가의 기관은 아브라함을 중생시킨 성령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라고 바울은 부른다.

그러나 이 중생과 믿음의 표와 인침은 아브라함의 아들 유아에게 8일 만에 주어졌다.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가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b. 더욱이 모세 언약하에서는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믿음의 표징으로 믿고 순종하라는 일방적 명령이었다.

신명기 10 : 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끈케 하지 말라”고 하신다. 할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표징이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 표징을 거부하고 경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할례로서 저희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신 30 : 6)

이 믿음의 표징과 약속은 구약하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아에게 주어

졌다.

그렇다면 신약하의 믿음의 표징을 유아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할례는 믿음의 표징이었고 그러므로 하나의 성례(Sacrament)였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받는 자를 인치시는 것이다.(롬 4 : 16)

그러나 할례가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결과하지는 않았고 로마서 4 : 12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또한 끝까지 약속된 메시아 신앙에 이르지 못한 자들도 역시 이 신앙의 표징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셨다(롬 9 : 13). 그러나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둘 다 믿음의 표징인 할례를 받았으나 한 사람만 구원의 신앙에 이르렀다.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할례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는 불신으로 예정하셨던 일이다.

할례의 의미는 그것이 믿음의 표징이고 인침이다(롬 4 : 11). 세례의 궁극적 의미도 그것과 똑같은 것이다. 골로새서 2 : 11, 12에 보면 할례와 세례가 참된 중생에 관계되어 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한 이 말씀에서 기독교 세례에 실재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일치하고 있다.

나. 아브라함 언약과 그리스도 언약은 동일하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로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포함하고 그것이 할례로 인쳐졌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 즉 그리스도

를 포함함이다.

갈라디아서 3 : 16, 17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의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였다.

아브라함과 그의 씨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다. 갈라디아서 3 : 7에 “그러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하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과 인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아들에게 주어졌으므로 바울의 기독교 세례관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할례를 받았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었듯이 비록 수세자에게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구약의 경우에서와 같이(신 10 : 12, 30 : 6 ; 롬 4 : 11 ; 골 2 : 11) 이 언약의 표징과 인침을 믿는 자의 자녀인 유아에게 베풀어져야 한다.

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이 유아들을 위한 것인가?

구약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약속은 거의 유아들에게 베풀 할례로 인쳐지고 그 뜻을 나타낸다. 그런데 신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들을 위해서 약속했고 이 약속의 표징과 인침을 받았다고 할 때에 오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언약의 통일성을 생각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 갈라디아서 3 : 29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했으며 사도행전 2 : 39에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㉕. 유아세례의 유익

언약의 표징인 유아세례는 부모가 그 언약의 외적 유익에 대해서 서약하는 유아에게 베풀게 된다.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침례교회에서는 언약의 면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유아를 주님께 봉헌한다고 한다. 그런데 봉헌은 나실인의 서약으로 하는 것이다.(삼상 1 : 28~2 : 22)

이렇게 사무엘은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아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 기르게 했던 것이다. 이것이 봉헌이다. 그러나 침례교에서는 아이를 나실인의 서약하에 두지도 않고 교회 목사에게 맡겨 기르게 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의 봉헌도 먼저 율법을 좇아 할례를 받았고(눅 2 : 21-23, 39) 영적으로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가지신 것이다(갈 3 : 5, 6 ; 골 2 : 11 참조).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아이에게 세례도 받게 하지도 않고, 주께 가져오지도 않는다. 저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되 주를 두려워 하도록 기르는 책임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모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고 확인하므로 부모 자신들이 주를 사랑하고 경건의 본이 되고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함께 기도해서 그가 믿음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할례를 믿음의 징표와 인침으로 받드시 신약의 유아세례도 믿음의 징표와 인침으로 받는 것이다.

4. 세례의 효과

교회나 신자가 기독교 세계를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라고 신조는 규정한다. 누가복음 17 : 30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든가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분명히 중생했다고(Baptismal regeneration) 할 만큼 이 세례에 은혜와 구원이 나눌 수 없게 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신조 28 : 5). 사도행전 8 : 9-25에 나타난 대로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고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내리신 것을 보고 자기도 그 권능을 받기 위하여 돈을 드려 구하므로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책망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고 하였다.

세례의 효과, 즉 성령의 임하심과 중생의 은혜가 그것이 집행된 시간에 매여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신조의 입장이다. 성령의 내적 부르심과 중생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외형적 표출로 판단할 수 없고 원리적으로는 세례 예식 이전에 믿음이 이미 생긴 것을 보아서 그 이전에 중생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세례와 동시에 임할 수도 있고 또한 그보다 훨씬 늦게 성령이 임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무효하다는 말인가?

칼빈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 멀고 믿음 없이 세례에서 받은 약속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항상 확실하며 믿을 만했다고 대답한다...그러므로 그때에는 세례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기 시작하며...오랫동안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눈먼과 완악함을 자책한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세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약속하시며 의심의 여지없이 그 약속을 모든 신자에게 실행하신다고 생각한다.”(기독교 강요 4 : 15 : 17)

三. 성만찬

성례의 둘 중에 또 하나는 성만찬이다. 성례 제정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칼빈, 기독교 강요 4 : 19 : 2). 성례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의해서 신자의 양심에 용기와 위로를 주어야 한다. 성례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증거해야 한다.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 또는 약속에 날인하는 인이다.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신비를 비천한 물질 속에 숨긴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한다. 성례는 경건에 관한 모든 외적인 의식과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표징에 대해 말할 때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이다.(기독교 강요 4 : 19 : 3)

세례가 죄의 용서와 중생, 회개와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증 표시한다면 성만찬은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평생토록 양육하는 영적 양식 제공이다.(기독교 강요 4 : 17 : 1)

칼빈은 성만찬을 영적 잔치라 하며 이 잔치에 제공하는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한다(요 6 : 51). 세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한 삶을 확증한다면 성만찬은 계속해서 이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1. 성만찬의 표징과 본체

이 잔치 중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주신 떡,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진정하고 복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떡임을 확증한다(요 5 : 51). 이 신비는 극히 심오한 것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첫째로 떡과 포도즙은 표징들이다.

이 물질적 표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받는 보이지 않는 양식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단번 행동으로 십자가에 구속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 주셨으며 그의 몸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시고, 성만찬의 거룩한 신비를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을 확증시킨다. 따라서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나 복음 말씀의 설교나 가르침이 없는 성만찬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올바른 성례전 집행은 말씀과 떠날 수 없다. 성만찬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은 말씀을 전제로 한다…따라서 폭군적 교황이 한 듯이 침묵의 행동으로 변해버린 성만찬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칼빈, 기독교 강요 4 : 17 : 39)

떡과 포도즙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영혼은 그리스도에게서 양식을 받는다. 곧 주의 몸이 우리를 위해 유일회적으로 희생되어 그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 유일무이한 희생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느끼도록 하셨으며 또 주의 피는 우리의 영원한 음료가 되도록 유일회적으로 흘리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성찬에 전파되는 말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신다.

둘째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성만찬에서 큰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의 생명, 곧 영생을 확신하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천국이 그와 분리될 수 없음같이 우리와도 분리될 수 없고 우리가 다시 정죄받을 수 없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가 갖게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와 의 교환(Mirifica Communicatio=결과로 나타나는 영혼의 변화)을 칼빈은 말한다. 즉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그가 우리와 함께 인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가 우리의 유한함을 취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약함을 받으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었고, 우리의 가난을 자신의 것으로 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풍요함을 누리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의의 옷을 입게 됐다. 성찬에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놀라운 교류가 이루어진다.

2. 성만찬에 예수 그리스도는 임재하신다.

칼빈은 이 성례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눈앞에 계시며 우리 손으로 만지는 것같이 생각해야 한다”(기독교 강요 4 : 17 : 3)고 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을 성령이 효과적 역사로 성취시킨다는 것을 성찬에서 보여 주심으로써다”(4 : 17 : 10)라고 한다.

로마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공간적으로 임재하여 손으로 만지고 이로 찹고 입으로 삼킬 수 있게 성찬상에 놓이는 것처럼 말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그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있다(행 3 : 21)고 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와 같은 물체 아래 끌어내리거나 그 몸이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떡의 속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떡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다(化體說=Transubstantiation). 미사 때에 성별 기도 후에 떡의 형체 아래 그리스도의 몸은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기도하므로 떡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변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한다.

이것은 제 4차 Latelano 회의(1215 A.D.)에서 채택됐고 오늘날도 다른 신조보다 이것을 더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칼빈의 입장은 화체설이나 공재설이 아니고, 상징만도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참여함으로 속성의 교류(Communicatio Idiomatum)를 하면서도 그리스도는 항상 떡과 포도주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성만찬의 신비는 두 가지 사실에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연합성 때문에 불가시적인 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 앞에 표현하는 물질적 표징들이고, 둘째는 이 상징들에 의해서 표현하고 제시되는 영적 진리라고 할

때 그것은 결코 물질적 실체가 아니다. 성만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은

① 표징(떡과 포도주)

Signification

② 중심사(예수 그리스도)

Matter or Substance

③ 효과(구속, 의, 성화, 영생)

effect

성만찬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확실한데 이것은 영적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로마서 8:9에 증거된 것이다.

끝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신앙과 사랑이—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나—있어야 주님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무지,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놓을 때 주님은 자비로써 우리를 합당한 자로 만든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말씀과 신앙에 기초한 생활이 동반되는 신앙적 의지를 가지기를 요망하고 특히 칼빈은 불경건한 자의 성만찬 참여를 경고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고전 11:26, 27)

축도에 관한 고찰

고 재 수 박사

(N.H. Gootjes, 교수 · 신학박사)

시작하는 말

한국교회에서는 축도문으로 고린도후서 13:13을 사용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개혁교회에는 그 외에 또 민수기 6:24-26에 나오는 제사장이 사용한 말로써 대신하기도 한다. 즉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는 말씀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많이 사용해 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중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3:13에 따라 축도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